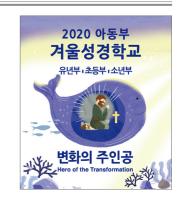


등록번호 다-467/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 2020년 김정석 담임목사 신년사 "지구촌에 평화와 복음을"

2020년 광림교회는 "복음 전하며 세상 에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사 52:7)로 표어를 정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 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 루기 위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한 지난해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올 한해에도 광림 의 가족들 위에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지 난 한 해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은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란 표어를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 리 교회의 영적인 산실이며, 한국교회 기도 처인 광림수도원 대성전과 샬롬하우스를 새 롭게 단장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의 헌신으로 몽골 제2 선교 센터인 〈몽골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가 새롭게 건축 봉헌되었으며, 여선교회의 헌 신을 통하여 2020년 4월에 〈광림 블라디보 스토크 미션센터>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교회 안으로는 각 기관들과 부서들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 실업인선교회가 주 관한 <제4회 전교인 한마음 걷기대회>는 5월의 푸르고 화창한 날 한강변을 온 가족 이 함께 걸으며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었습니다.

또한 걷기대회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정 성껏 모은 성금으로 월드비전의 결식아동과 미혼모 가정에 후원금을 기탁한 것은 하나 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습니다.

광림의 청년들의 〈국내교육선교〉와 더불 | 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

어 선교로 〈해외 100개 교회 건축〉을 지속 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은 참으로 감사한 일 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일 입니다.

의료선교회는 〈의료선교〉로 몽골, 필리 핀, 캄보디아 땅에서 의료선교를 펼치며 현 지인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밖에도 제한된 지면을 통해 다 나눌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증 거를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을 위하여 수고하셨음을 감사한 마음과 더 불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넘치는 하늘의 상급 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간구하며 세계로 나아갈 것 2020년 광림교회는 "복음 전하며 세상에 평 화를 선포하는 교회"(사 52:7)로 표어를 정

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자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많 은 분쟁과 다툼의 소리, 안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과 더불어 둘로 나누어진 사람들, 이러 한 나누어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 리스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참 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평 화는 인위적이며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구적이며 창조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화가 임하게 됩 니다. 이 평화가 있을 때 이 땅에 나눔과 분 쟁 그리고 다툼의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 3면에 계속)

광림의 강단

🔵 광림 스토리 - 구원의 적극성을 보이신 예수님 - 모든 교역자들, 합심하여 기도

하나님을 만나다 4 성탄트리로 헌신한 성은정 성도 믿음의 현장

복음 문화와 만나다 유물과 함께 보는 성경과 역사

### 구원의 적극성을 보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주십니다. (마가복음 2:13~17)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 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 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고 말씀합니 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2장 1 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네 명의 친구가 중 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 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고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 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네 죄사 함을 받았느니라"(막 2:5)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와 네 명의 친구가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이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깊은 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음을 아시고 고쳐주십니다. 또 중풍병자를 향해 네가 지금 병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니 네 죄 사함까지 받았다 고 하십니다. 그의 병은 육신의 문제가 아 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하시며, 영혼을 치유 그러고 난 다음 2장 13~14절에 오늘의 주

하심으로 육체까지 강건케 고쳐주십니다. 인공인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세리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는 당 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 동족인 유 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바쳤던 사람 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에 충성했던 세리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리 는 비애국자요, 반민족주의라고 생각했습 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한 세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세리가 잔치 를 여니 초청받은 사람들도 세리입니다. 이 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시고 저 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병을 고 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 음서에 보면 이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것을 아신 예수님은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아픔이 많습니다. 육신과 마음 모두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아픔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마가복음 2:13~17

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 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또 지 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 니 일어나 따르니라 15.그의 집에

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 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 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6.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 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3.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 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예수께서 들으시 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 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 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 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 <u>첫째,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는 분</u> 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리 레위와 예수 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저 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저들 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 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 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깨끗해야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 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 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의원'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뿐 만 아니라 우리 죄도 사해주시며 구원하시 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치유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 날 줄 믿습니다.

###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 <u>니다.</u>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리 레위를 부르시 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 본 것도 아니고, 과거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제 자를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리 레위 의 마음을 아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 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할 때 빨리 낫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 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되며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 험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여 불순종하면 아무 것도 변하 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아멘으 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에서 해방 되어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을 따를 때 기도에 응답을 받고 우리 문제를 들어주 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 <u>셋째, 예수님은 구원에 적극적인 분</u> 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5절 이후 말씀 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레위 가 감격스러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 시고 잔치를 엽니다. 한글 성경에는 레위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원문을 보면 예 수님이 찾아 가셨습니다. 초대를 받으신 예 수님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님은 세리 레위의 집을 찾아가셔서 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굳이 세리의 집에 방문해서 사람들의 이상한 이야기와 루머 에 휩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 수님은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저들을 구 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이야기에 반응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시 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 의 수군거림과 욕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 다. 구원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모욕과 불 이익도 감수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 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 구원 사 역을 위해 순종하는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 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 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 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30

(->1면에 이어)

### 복음 안에 평화가 있고, 하나됨의 역사 있어

이 평화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주인 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증거 되고 선포 되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교회가 이 사 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광림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 음 안에 평화가 있고, 복음 안에 하나 됨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우 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이 땅과 지구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데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영향력 세워나가자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광림 교우들이 힘써 맡은 자리에 믿음의 선한 증거를 보였던 것 처럼 올 한 해에도 복음 안에 담겨진 놀라 운 일들을 전하며 평화의 소식을 선포하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광림의 성도들이 말 씀과 기도, 경건의 생활이 습관화되기 바랍 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거룩한 습관이 되고 들려오는 하나님 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 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릴 뿐 아니 라, 이로 인한 선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 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영 향력을 세워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의 사람들이 속회와 선

교회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더 나아가 평화의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 하고 전파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 오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속회와 선교회, 전도와 선교 통해 거룩한 공동체로

속회를 통해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고, 서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의 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다른 사람에 게 전하는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선교공동체 이지만 남녀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의 선교 지경이 넓혀지는데 쓰임받는 선교 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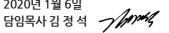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게 주신 본질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을 잃어버 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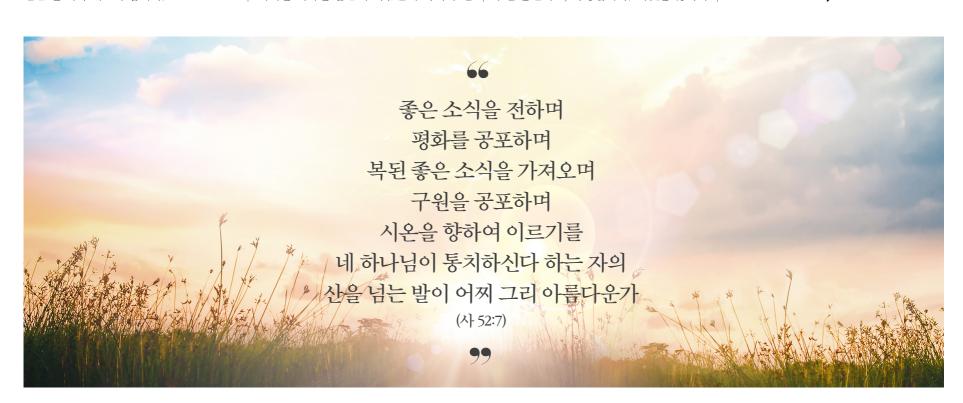
올해는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광 림의 지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대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축복을 허락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광림의 지체들이 올 한 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러한 축복을 다 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 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축복이 함 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 1월 6일





### 모든 교역자들, 시무예배 후 광림수도원에 올라 뜨겁게 기도

1월 2일(목), 전도와 새가족 정착, 속회 부흥과 다음세대인 청년과 청장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2020년 1월 2일(목), 광림의 모든 목회자와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무예배〉를 드렀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과 권면으로 힘차게 2020년 새해를 시작하 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에,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광 림교회의 사명은 더욱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라 강조하셨습니다. 내적으로는 예배, 기

도, 말씀 등 모이기에 힘쓰고.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평화 없는 세상에 진정한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는 비전을 공유해주셨습니다. 목회자와 직원들은 다시금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2020년 시무예배를 마쳤습니다.

이후 전 교역자들은 새롭게 단장한 광림수 도원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 와 사명을 위해 결코 기도 없이 한해를 시 작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 자'라는 자발적 의지의 발로였습니다.

리모델링된 수도원 대성전의 모습은 그 자 체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끊임없이 갱신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뜨겁 게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기획목사님 의 인도로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첫째, 전도를 위해, 둘째, 새 가족 정착을 위해, 셋째, 속회의 부흥을 위

해, 넷째, 다음세대인 청년부, 청장년부, 스 데반 마리아 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 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하며 지 혜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내려놓 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 가 계속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께 서 광림의 교역자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 끼는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앞서 기도했던 주제를 놓고 목회자들이 함께 머 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였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함 께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 교역자들의 영적 인 씨름은 올 한해 계속될 것입니다.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 끈질기게 기도했던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 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 다"(창 32:26)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도 "부흥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당 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며, 2020년 한 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림제단에 놀라운 부흥 을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 황영재 목사(9선교구)

### 내 인생의 말씀

###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셔

저는 중학교 때 자녀들의 신앙교육 을 이곳에서 시켜야겠다는 엄마의 바 람으로 광림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 다. 주일성수와 십일조 두 가지를 철 저하게 가르치신 엄마의 신앙교육으 로 조금씩 믿음이 자라던 중, 고 1때, 현대고등학교 작은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 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 게 보이리라"(렘 33:3)는 말씀으로 저 를 만나주셨습니다. 학교 맨 위층에 자습실이 있었는데, 밤에 자습하다가 창문으로 보이던 광림교회 십자가 불 빛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 를 소홀히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히 브리서 말씀처럼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말씀으로 분명하 게 응답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갑작스레 수술을 진단받았 던 그 주일, 담임목사님 설교 본문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 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호 6:2) 말씀을 듣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리라는 큰 확신이 들었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 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 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일이 많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진심으로 회개 합니다.

올해 부족한 저를 충성되게 여겨주셔 서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딤전 1:12)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 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 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

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겔 36:37)

🛁 홍은경 집사(유년1부 부장)



### [찿아가는 인터뷰 14회] 성은정 성도 (17교구)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을 통해 희 망을 노래하는 젊은이가 있다. 지난 대강절 교회 곳곳을 성탄트리로 장식한 성은정 자 매다. 자매는 큰 수술 후 회복 중에 성탄트 리를 디자인 기획하고 제작, 설치까지 진두 지휘하였다.

##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 희망을 노래하다

9년차 쥬얼리브랜드 대표로 화려한 삶을 살 아가던 자매는 지인들에게 사업상 사기를 당하고 건강까지 해쳐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하나님을 만났다. 짧은 시간 자매를 신앙 인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기 를 들어보았다.

#### 어떤 계기로 성탄트리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기도 중에 마음을 주셨지만 디자인 분야가 다르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해도 되는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목사님 의 권면에 힘을 얻었고 기쁜 마음으로 청년 부 친구들과 함께 장식했어요. 쥬얼리 디자 인을 할 때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작업하지 만, 성탄트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디자인으 로 하고 싶어 매일 새벽기도를 하며 하나님 께만 집중했어요. 작업 중에 제가 가진 금속 공예와 그림의 재능이 이 때를 위한 하나님 의 예비하심이 깨달아져 감사의 눈물을 흘 렸어요. 또 트리장식을 위해 회사를 비운 시 간 하나님께서는 회사운영과 저의 건강 또 한 책임져 주심을 경험했어요."

####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했는지?

"재작년 4월 사업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청년 부 한은선)에게 교회에 가고 싶다고 데려가 달라 했어요. 늘 언니의 밝은 모습을 보며 교회에 가면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교회에 가 자는 언니의 권유가 있었지만, 교회에 비판 적이던 저는 사업상 힘들 때마다 미신에 빠 져 지내며 강하게 거부했어요. 하지만 언니

의 오랜 기도 덕에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함 을 얻었고, 40일 호렙산기도회를 완주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 걸음은 계속해서 새벽예배로 이어지고 있어요."

###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했는데?

"지난해 악성종양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도 우심 가운데 기적적으로 수술했어요. 처음 엔 원망스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수술 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선교를 가 이 틀 동안 밤새워 벽화 작업을 할 때도, 이번 성탄트리 장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서 지금은 모든 상황에 감사할 뿐입니다."

#### 청년부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다보니 밥 사주고 운전해주는 누나?(웃음)"

"새신자실에서 청년부 담당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교회에 전도돼 오는 청년들이 대예 배에 한두 번 나오다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 이 많은데, 등록된 청년들을 만나거나 전화 심방을 통해 청년부 예배에 나오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0년 정도 사업을 하며 얻 은 경험들이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새신자 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것 같아 요."

### 계획이나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중국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가 올 한 해 잘 진행되고, 허락하신 기업에 부어주실 일들을 통해 주님만을 증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 〈경찰병원교회〉에서 환자의 전인적인 삶과 치유 돕는다



### 병원에서 매달 30명 이상 전도하며 복음 전해

국내 최고의 공공 국립의료기관으로, 경찰 과 그 가족, 일반 시민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경찰병원' 본관 3층에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들어서 있고, 광림교회 에서 파송된 '강태석 목사'가 경목실장이라 는 직함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병원 입구와 병실 앞 등 여러 곳에는 크리스 마스를 맞이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트리들 이 장식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송파구에 속한 광림교회 4선교구(담당 조성한 목사)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강 목사는 수련목회자 시절 이대목동병원을 시작으로 목사안수 후에는 서울대병원과 세 브란스병원,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경찰병원에서 목회를 하는 등 20년이 넘도 록 오직 병원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역 만 감당하고 있다.

강 목사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죽음과 내 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 게 되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 일 때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회복은 의료진 이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고민을 듣고 기도 하면서 전인적인 삶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목회는 매일 오전 6시 새벽기도회부터 시작 된다. 이어 오전에는 이날 병원에 처음 입원 한 환자를 방문하고, 수술이 예정된 환자를 찾아가 기도드린다. 오후에는 환자 중에서 수요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나 기존 입원환 자 중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심방을 간다.

정해진 요일마다 미리 약속된 교회의 전도 팀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매주 주일예배에 는 교회 성가대가 와서 예배 봉사를 하는데, 광림교회에서는 4번째 주일예배 때 청년부 가 와서 준비찬양과 특별찬양을 한다. 이러 한 노력 등으로 인하여 매달 30명이 넘는 '결 신자'(신앙을 갖기로 결심한 사람)가 나온다 고 한다. 2020년 새해 경찰병원교회에서는 '치유의 능력이 샘 솟는 교회'(출 15:26)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경찰선교의 일선에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 청년부 비전 2020 "4가지 부흥 운동"

1인1명 전도운동, 속장 세우는 114운동, 예배 10분 전 운동, 선교운동



2020년 광림교회 표어는 "복음 전하며 평화 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비전에 따라 청년부는 4가지 부흥 운동(Four Revival Movement)을 전개합니

첫 번째는 "119 운동(119 Movement)"입니 다. 청년들은 일 년에 불신자 한 사람을 전 도해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인생 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 는 약 97%의 20~30대 비기독교인 청년들에 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 다. 이를 통하여, 이번 한 해 동안 5부 예배 에 1,0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4 운동(114 Movement)"입니 다. 60명의 청년 속장들은 일 년에 한 명의 사람(속장)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기독교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 원을 받게 한 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 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세워가 려고 합니다. 올해는 60명의 청년 속장으로 출발합니다만, 연말에는 100명의 속장, 100 개의 속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10분 전, 운동(10 Minutes ago Movement)"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평화를 선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청년부 예배와 집회, 각종 모임에 참여 하면서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 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 할 점을 한 가지 발견하였습니다. '10분 전' 에 자리에 착석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일입 니다. 10분 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 의 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고 성령의 임재 를 요청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 으며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 우려고 합니다. 70여명의 청년부 임원에서 부터 출발하여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한 가지 선교 운동(One Mission Movement)"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 기 위하여, 청년부 17개 사역팀은 일 년에 한 번 이상 선교를 진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의 친교와 교제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서 복 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평화를 이뤄가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 도하심 속에 "4가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 천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 하는 청년부, 많은 열매를 거두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김주송 목사(청년부)

### 교회학교 비전 LIGHT 2020, "깨어라 전하라 떠나라!"

1월 31일(금)~2월 9일(주일) 유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겨울캠프〉 진행



### 빛의 숲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회학교는 2020년 '복음 전하며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 는 교회'(이사야52:7) 표어에 맞추어 빛의 자 녀들이 어둠에서 깨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사야 52장 전체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2020년은 광림교회학교의 LIGHT2020 교육계획의 마지막 변화 (Transforming)에 주안을 둡니다. 이사야 52장에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3가지 명 령이 있습니다. "깨어라, 전하라,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잠들었던 우리의 신앙과 열정 을 깨우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 다운 발을 소유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의미입 | 이를 위해 빛의 숲 광림 자녀들의 아름다운

니다. 이제 빛의 숲 광림의 믿음의 다음 세 대인 빛의 자녀들이 "깨어라, 전하라, 떠나 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변화를 꾀할 때입 니다. 작은 걸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실천하 며 견고히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침체기에 들어서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침체된 모든 운동신경을 깨우 는 첫걸음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 야의 종교개혁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말 씀과 기도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학교의 성장이 침체된 이때 2020년 광 림 교회학교는 말씀의 기본을 튼튼히 하고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전하는 제자의 기본 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발걸음을 견고히 하고자 'B.A.S.I.C.'라는 핵 심가치를 세웠습니다.

Bible story - 말씀으로 깨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Activity - 예배 안에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체득합니다.

Speed Quiz - 그날의 말씀을 되새기며 확인 해봅니다.

Insight - 받은 말씀으로 시대의 어둠을 구 별하며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소유합니다.

Challenge - 나를 일깨운 구원의 말씀을 세 상에 나아가 선포합니다.

2020년 빛의 숲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기초부터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 록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그리 고 무엇보다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단의 첫걸음인 겨울캠프 에 자녀들이 참여함으로 기본을 견고히 세 우는 변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 교회학교 겨울캠프 ]

주 제 : 변화의 주역(욘1:17) 유년부: 1/31~2/1, 광림교회 교육관

초등부: 2/8~9, 광림교회 교육관 소년부: 2/7~9, 국제광비전랜드 중고등부: 2/7~9, 광림수도원 문 의:교회학교 02-2056-5361

### 신앙 간증

### 예수님의 사랑을 따뜻한 연탄 한 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 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 니라"(고린도전서 13:4, 7)

청년부에서는 매년 12월 중순 사랑의 연 탄나눔을 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연 탄나눔에는 100명 안팎의 청년들이 연탄 은행이나 연탄나눔 사역을 하는 교회로 가서 인근 가정집에 직접 연탄을 배달합

개인적으로 약 10회 정도 참여한 연탄 사 역을 생각하면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릅 니다. 추운 날씨, 하얀 눈밭, 땀을 닦아가 며 줄지어 연탄 릴레이 하는 청년들의 열 정, 감사하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 사 역 후 다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식사, 그리 고 까만 연탄재가 묻은 서로의 얼굴들.

청년부는 한 해 동안 새가족,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지 등 다양한 곳에서 돕고 섬기 지만, 실질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섬기 는 사역이 바로 연탄나눔입니다. 개당 약 700원 밖에 안 되지만, 청년들은 가정별 로 200~300장의 연탄을 배달하면 어르 신들은 이것으로 약 2~3달을 따뜻하게 지내십니다.

올해 연탄나눔은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 6교구 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참여했고, 중요한 지역을 감당했습니다. 주일 교구모임 때 속원들 사이에서 연탄 사역 참여를 독려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하나 님께서 저희 6교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 이셔서 많은 참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 다. 게다가 사역 당일에는 헬스로 다져진 4명의 새신자 형제들도 보내주셔서 잘 감 당할 수 있었습니다. 연탄 운반 길이가 어 느 때보다 길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았지 만, 청년부 김주송 목사님께서 방안을 제 시하시고, 이준영, 김수경 전도사님, 모든 6교구 청년들이 함께 연탄 릴레이로 하나 되어 순조롭게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탄 사역을 할 때마다 광림교회 모든 성

도님과 다 함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주 일 연탄 모금을 섬기며 성도님들의 기도 와 후원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청년 들의 열정과 만나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 되기 때문입니다. 추운 연말, 하나님께서 는 한 번 더, 이웃을 돌보며 도움이 절실 히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 니다.



★ 신동협 성도(25교구)

###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명

### - 목회현장 -



이영규 목사(광림서교회)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계란프라이를 해 줄 테니 슈퍼에서 계란 10개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신이 나 계란 봉지를 힘차게 빙글빙글 돌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프라이 대신 계란찜을 먹었습니다.

심부름은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인데, 잘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고급언어로 바꾸면,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 광림서교회에서는 한 해 동안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신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새 해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교사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 중에 전도사님들께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하신 독특한 상장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상큼발랄상, 잰틀상, 백종원상, 잘생김상, 말잘함상으로 선생님들의 특징과 장점들을 즐겁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생각과 스타일은 달라도 한 가지의 분명한 공통점은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된 많은 주님의일꾼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가운데에는 힘차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리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흘려 수고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한이들도 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성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섬김과 사명의 자리는 달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충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 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는 일 이라도 그 자리에 진실과 성실을 담아낸 다면,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 러내는 위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 가나안성가대 20주년 "주님께 감사해요"

- 광림남교회 -



"오늘의 가나안성가대가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성가대의 앞 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리 라는 믿는다."

### 헌신과 기도로 하나된 대원들

용인 수지의 작은 빌딩 1개 층을 임대해 예배를 드린 광림남교회 수지성전 초기에 여성 11명, 남성 8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가나안성가대.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된 20주년을 맞아 짤막한 소회를 적어본다.

초대지휘자 이시은 집사의 지도력은 참 열 정적이었다. 우리는 한참 나이 어린 지휘자 의 지휘봉에 배를 찔려가며 호흡과 발성을 익혔고, 두세 명씩 일으켜 세워 연습시키는 혹독함을 이겨내어 오늘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2000년 초에는 이시은 지휘자와 듀 엣으로 에반스의 '축복'을 헌금송으로 불렀 던 추억도 있다. 덕분에 대원들의 숫자도, 대원들의 실력도 나날이 향상되었다.

그 뒤를 이어 감성적인 곡들로 가나안성가 대를 개성적으로 이끈 장인석 지휘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모토 아래 한국인 정서에 맞는 작곡가들의 곡들로 찬양을 지휘하던 권영진 지휘자, 작년 새롭게 부임하여 젊음과 큰 믿음으로 대원들을 탁월하게 조율해 간 이동엽 지휘자까지, 덕분에 가나안성가대원들은 빠르게 곡을 소화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이 모든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젊은 청춘 때에 와서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성실하게 20년 가까이 반주자로 섬기고있는 이성민 반주자, 이들이 있기에 오늘의가나안성가대가 있을 수 있었다.

또한 찬양에 앞서 신앙 공동체로 대원들을 굳건하게 결속시킨 것이 있었으니, 매년 서 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기도 한 것이다. 배우자들의 이름은 물론, 자녀들의 이름과 어려움까지도 서로 깊이 알며, 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는 앞으로도 결코 쇠해질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성가대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했건만 안타깝게 우리들 곁을 떠난 대원들인 임원득 권사, 이상덕 권사, 서옥선 권사의 환한 웃음도 결코 잊을 수 없다.

가나안성가대의 20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 께 올려드릴 곡으로 '주께 감사드리세'와 '주 님을 신뢰해'로 선곡함도, 오늘의 가나안성 가대가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 안성가대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는다. 이것을 우리 대원들모두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일상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길 기도한다.

📩 최윤배 권사(광림남교회)

### 콩고 아기 '아리엘'의 특별한 세례예식



2019년의 마지막 유아세례가 지난 12월 22일, 주일 3부예배 때 있었다. 이날 영아세례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때 유독 눈에 띄는 아기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콩고인 데니(Denny)와 네네뜨(Nenette) 부부의 둘째딸 '아리엘'이었다.

데니와 네네뜨 부부는 2015년에 우리 광림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였고, 2017년 3월 25일 광림사회봉사관 컨벤션A홀에서 권순정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첫째 딸 아나엘이 출생하였고, 광림교회에서 영아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번엔 동생 아리엘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현재 4살인 언니

아나엘은 벌써 아빠, 엄마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을 정도로 믿음 안에서 잘 크고 있다고 한다.

주일 대예배 때 외국인제자훈련센터의 외국인 유아세례는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선교회 팀장인 한미자 권사의 손자인 정건회군이 처음 받았다. 그리고 이후에 데니-네네뜨의 첫째 아이인 아나엘이 두번째로 받았고, 이번에 아리엘이 세번째다.

아리엘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답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아이들이 사랑으로 세상에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데니-네네뜨 부부는 모두 다 모태신앙이며, 본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국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 한국에 와서 2015년 11월부터 우리 광림교 회에 처음 나왔고, 2016년부터는 매주 빠짐 없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현재 아빠 데니는 콩고 예배를 인도하는 피터 집사가 개인사정으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때(아주 가끔 있는 일) 예배를 인도하며, 평소에는 찬양을 위해 반주로 아프리카 전통악기 탐탐을 연주하며 찬양반주를 담 당하고 있다. 불어권(콩고)예배는 본당예 배를 드리는 둘째 주일을 제외하고 매주 오 전 11시부터 자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리 더인 피터집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본당예 배 시에는 담임목사의 말씀을 피터 집사가 동시통역을 하고 있다.

외국인제자훈련센터에서 콩고를 중심으로 한 불어권선교회는 매주 10~15명 정도,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20명~25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광림외국인제 자훈련센터에 2019년 한 해 출석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현재 매주 적게는 130명, 많을때는 160명이 넘게 출석을 하고 있다. 이디오피아선교회가 50~60명, 몽골선교회가 40~50명, 중국선교회가 25~30명, 러시아어권선교회가 10명 내외, 불어권선교회가 10~15명 정도 모인다.

외국인은 우리 땅의 나그네들이다. 나그네 된 이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외 국인제자훈련센터 봉사자들은 이것이 하나 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여기며 감사로 이들 을 섬기고 있다.

★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2019

2020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광림교회 성도들은 2020년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복음 전하며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로 비전을 선포한 광림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지난 2019년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주요 사역을 돌아보며 2020년 새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나아가자.



### 광림수도원 새 단장 대성전, 샬롬하우스 봉헌예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로 쓰임 받는 광림수도원은 한 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의 터전이 되고 있다. 광림수도원은 4월 샬롬하우스를 리모 델링하였고, 12월 20일에는 새 단장한 대성전에 교계와 교 단, 1,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봉헌예배를 드렸다.



몽골 울란바토로 서쪽에 광림어르비트 미션센터가 세워졌다. 기존의 게르 교회를 헐고 지난 4월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11월 27일 남선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상 3층, 종탑 5층의 교회가 완공되어 입당봉헌예배를 드렸다. 어잉게렐 미션센터와 더불어 몽골의 미래를 열어갈 복음의 능력체가 되었다.



### 감람동산 새 단장 및 라피엘 조가 찬양단 창단

지난 9월 새 단장을 마치고 합동추모예배를 드린 감람동산은 국내 제1의 친환경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은혜로운 산골장이다. 3월 창단된 라파엘 조가 찬양단은 천국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위해 발인 예배 때 찬양으로 함께한다.



### 성령한국 청년대회 2019

이 땅의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하는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Fill in〉을 주제로 8월 3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만남, 비움, 채움, 보내심의 4가지 테마로 청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거 듭나 자신이 속한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이되 길기도했다.



### 캄보디아 한인선교사대회

10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교파를 초월한 200여 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석 담임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축복했다. 광림의료선교위원회에서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선교사와 그가족들을 위해 진료했고, 교육국에서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돌봄 프로그램을 가졌다.



### 2019 호렙산기도회

40일간(6/3~7/12, 새벽 4시 45분) 새벽을 깨우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충만한 제31회 호렙산기도회는 '회복(RECONCILIATION), 다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본당과 지교회가 하나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의 천국잔치였다.해외 41개국 성도들도 인터넷을 통해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 동참했다.



### 청년부 국내교육선교

뜨거운 여름, 청년들은 국내교육선교를 위해 전국 19개 지역 150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역 미자립교회의 교회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열고 찬양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했다. 아이들은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다.



### 제4회 전교인 한마음 걷기대회

실업인선교회 주관으로 5월 11일 한강 잠실청소년광장에서 광림 가족들은 〈제4회 전교인 한마음 걷기대회〉를 가졌다. 참석한 성도들은 정성껏 모은 성금을 월드비전 결식 아동 및 청소년 한부모 가정돕기 후원금으로 기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 광림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 4월 봉헌 예정

광림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는 4월 봉헌 예정이며 여선 교회의 헌신으로 건축 중이다. 고려인들을 위한 교회와 러 시아 목회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잠비아 미션센터 봉헌 예정

잠비아 미션센터는 2020년 봉헌 및 개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부 GBGM과 함께 에이즈 예방 및 퇴치 사역, 교육사업, 직업교육, 조혼 반대 및 구출사역을 할 예정이다.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비전과 말씀의 선포

교회학교는 "B.A.S.I.C."이라는 핵심가치를 세워 말씀의 기본을 튼튼히 하고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전하는 다음 세 대가 되도록 기초부터 견고히 세워지도록 한다.



청년부, 전도와 구원, 선교에 앞장설 것

청년부는 일 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고, 청년 속장들은 일 년에 한 명의 속장을 세우며, 10분 전 착석해 기도로 예배 를 준비하고, 일 년에 한 번 이상 선교하는 비전을 세웠다.



청장년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청장년부는 만 35세~39세의 1인 가정과 다인 가정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비전을 품고 모이고 있다.

▲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8) 성경의 화폐(1) 렙돈(Lepton)







א המלך יהונתן 왕 예호나탄

1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에 등장하는 렙돈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알렉산더 얀네우스(103-76 BCE)의 시대에 만들어진 동전이다. 동전의 한쪽 면에는 배의 닻이 새겨져 있다. 그 주위로 그리스어로 "왕 알렉산더" ΒΑΣΙΛΕΩΣΑΛΕΞΑΝΔΡΟΥ 라고 쓰여있다. 동전의 다른 쪽 면에는 별모양이 새겨져 있으면 그 주변에 히브리어로 "왕 예호나탄(여호나단)" חמלרייהנתן 이라고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히브리식 이름이 쓰여 있다. 이 동전은 얀네우스 시대 이래로 유다 지방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구약시대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일정한 가치의 기준이 되는 오늘날의 화폐가 없 었습니다. 그러므로 상거래나 어떤 상황 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로 금, 은, 청동, 철과 같은 금속들이나 양, 염소, 새, 곡물, 기름과 포도주 같은 가축이나 농산물이 화폐의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국연절이 와페의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세겔'이라는 단위가 나 오는데, 사실 이것은 세겔이라는 돈이 있 었던 것이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죽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땅을 헷 사 람 에브론에게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옵 니다. 이 때 에브론에게 "상인이 통용하 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창 23:16) 주었 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사백 세겔 무게의 은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은의 모양은 덩어리 일수도 있겠고, 아니면 장신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발굴물 중에는 은을 철사와 같이 길게 뽑아 놓고 마치 실타 래 처럼 뭉쳐 놓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은을 달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은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청동이나, 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겔이라는 무게 단위를 세겔이라는 화폐로 생각하시면 성경을 읽다가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 게 지불한 은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있는 단서가 위의 성경 구절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상인들은 바벨론(고대 바벨론 제국 1894 – 1595 BCE)의 무게 단위를 국제 통용 무게 단위로 사 용했습니다. 바벨론 세겔은 그 무게가 약 8.3-8.5g이니까, 400세겔은 은 3.4kg을 준셈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겔의 단위는 항상 일정 했는가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는 같은 시대라도 지역에 따라서 세겔의 무게가 제 각각이었습니다.

아래의 예는 매우 간단히 몇가지를 소개 하는 시대와 지역별 세겔의 표준 무게입 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에 브론에게 건넨 세겔은 그 무게 단위가 수 메르-바벨론 세겔이고요. 출애굽 때, 하 나님께서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데, 그 때 의 세겔은 아마도 이집트 세겔을 사용했 을 겁니다.

수메르-바벨론 세겔 (아브라함 가족들의 시대) 8.3-8.5g 이집트 세겔 (출애굽 시대) 11-13g 앗수르 세겔 (히스기야 시대) 10g 바벨론 세겔 (포로기 시대) 8.3-8.4g 요세푸스 (예수님 시대)

이렇게 세겔 무게 단위의 금이나, 은, 청동이나 철들을 교환하다보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로 저울을 가지고 다녀야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의 추도 가지고 다녀야합니다.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극복하

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동전입니다.

오늘날 동전의 기원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에서 국가 또는 지역 통치자들이 요즈음 식으로 말하자면 조폐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마다 세겔의 무게가 다르고, 저울 추를 믿을 수 없어서 고안해낸 제도입니다. 조폐공사에서 균일하게 무게를 맞춘 금과 은들을 휴대하기 쉽게 둥글 납작한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일정한 공인된 화폐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위에 문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날의 동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식 동전이 지중해 주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성과 편이성 때문에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시작해서 나라마다 동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식물이나, 글자, 또는 통치자의 형상들을 문양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신약성경은 당시의 동전들의 이름을 많이 소개합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과 같은 동전의 이름들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동전의 단위는 '렙돈'( $\lambda \in \pi \tau o \nu$ )이라는 단위입니다.

아마도 성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헌금 함을 지나가는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 누구보다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는 칭찬과 함께 말

이지요.

그럼, 두 렙돈을 지금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일까요?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마 20:10). 돈의 단위 상으로 1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입니다. 그런데, 렙돈은그 고드란트의 절반(2 렙돈=1고드란트)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하루의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하루 노동으로 1데나리온 (64고드란트)을 받는다면, 한 시간에 8고드란트를 받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시간 최저 시급이 2019년 을 기준으로 8,350원이니, 1 고드란트(=2 렙돈)는 약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데나리온 = 64 고드란트 = 128 렙돈

1 렙돈 = 500 원

금이나 은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동전 렙돈을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가치로만 이해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드리는 여인의 믿음의 무게로 그 두 렙돈을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믿음의 무게를 늘려나가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진설명

1 성경 속에 나오는 화폐인 렙돈(Lepton)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